



함평천지 국화천지...국향대전 개막 **향양, 빨강, 노랑, 단아함을 자랑하는 가을꽃 국화도 이렇게 화려할 수 있다. 27일부터 열리는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앞두고 대회장인 함평 자연 생태공원이 형형색색 국화꽃으로 덮였다. 국화꽃과 함께 걷는 가을 길, 어린이들의 발걸음이 정겹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대주그룹 등 3사 J프로젝트 협약

대주, 500억 출자...사업 총괄·조정

대주그룹이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J프로젝트)에 500억원 이상을 출자, 전체 개발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주간사로 참여한다. J프로젝트는 그동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차질이 우려되어 왔으나 대주그룹 등의 대규모 출자로 인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메인 SPC가 설립되면 모두 6천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대주그룹 등은 메인 SPC가 설립되는 시점에 출자금을 납입하게 된다. 대주그룹 등이 참여한 메인 SPC는 J프로젝트 전체 부지 3천만평 가운데 전경련이 개발하는 500만평을 제외한 2천500만 평의 부지를 매입·처분할 수 있게 된다.

박준영 전남지사와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은 27일 오전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빌딩에서, J프로젝트를 전담 추진하게 될 메인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날 체결식에는 대주그룹과 함께 메인 SPC에 참여할 프라이머리업 백종현 회장과 농협중앙회 정용근 신용대표이사도 함께 참석한다.

양해각서(안)에 따르면 대주그룹은 프라이머리업과 함께 J프로젝트 메인 SPC의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해 최소 500억원씩을 출자하며, 개발사업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주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농협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 일정액을 출자하며, 전남도 역시 1천억 원을 출자한다. 전략적 투자자는 개발사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며, 재무적 투자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또 5개로 나누어지는 사업부지 가운데 카지노 등 핵심사업시설이 들어설 525만평 규모의 A지구를 전담 개발하고, 나머지 B·C·D·E지구 개발에 필요한 하수종말처리장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도 조성하는 등 J프로젝트 전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대규모 투자자가 나서지 않아 차질이 우려됐으나, 대주그룹 등 개발 주간사 역할을 할 대형 투자자가 나타남으로써 J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현대나 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말 J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이 완성되면 내년도 메인 SPC를 설립한 뒤 정부에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신안군수 무소속 박우량씨 당선

25일 실시된 신안군수 재선거 최종 개표 결과 무소속 박우량(사진) 후보가 당선됐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박 후보는 유효투표수 2만5천258표 중 38.8%인 9천810표를 얻어 7천30표(27.8%)에 그친 민주당 최영수 후보를 제치고 당선이 확정됐다. 하남부시장을 역임한 정몽 행정관료 출신의 박 당선자는 "이번 선거는 부패하고 낡은 정치와 깨끗하고 비전 있는 행정을 원하는 군민과의 환관 대결이었다"며 "군민들의 기대와 뜻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6·15대 축전 열린 광주는 완전 해방구였다" 김용갑 망발...광주시민 분노

광주를 '해방구'로 표현한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의 망언에 광주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김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광주에서 열린 6·15 민족대축전과 관련, "주체사상 선전 홍보물이 거리에 돌아다니고 교

대시민 사과·국회의원직 사퇴 촉구

육현장에서 사상 주입이 이뤄졌다"면서 "2박 3일간 행사가 벌어진 광주는 완전히 해방구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정치계 등 각계 인사들은 "역사의식이 결여된 망언이자 '색깔론' 공세를 통해 정치적 이득을 보자는 속셈이다"며 "김 의원은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5·18민중항쟁은 이미 아시아, 나아가 세계 인권운동사에서도 보기 드문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받고, 광주시는 이제 민주인권평화도시로 자리를 잡았다"면서 "국가와 시민들의 의지로 치러진 행사를 공산주의와 연결시켜 폄하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지역주의와 색깔론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광주와 5·18을 북한과 연결시키는 일은 광주시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김 의원의 대시민 사과를 촉구했다.

윤장현 광주·전남유리민중서로돕기운동본부 대표는 "사학자들은 '광주가 없으면 한국도 없었다'라는 평가를 할 정도로 광주는 한국 현대사의 민주와 권위주의의 해체를 상징하는 단어"라며 "선거나 정치적 상황, 북한과의 관계 등에 대한 여야 대립을 지역주의까지 몰고가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흥길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현대 정치와 역사에 무지한 행태에 대해 논평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면서 "김 의원의 망언은 현 정치의 혼란을 틈타 군사정권에 바깥을

▲해방구란=독립을 위한 전쟁을 통해 외국의 지배나 종속관계에서 해방된 지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공산주의에 의해 점령돼 공산정권이 수립된 지역이란 의미로 쓰인다.

둔 복고의식을 재건하기 위한 몸부림이다"고 말했다.

강정제 전남대 총장은 "김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이란 자리의 중요성을 망각한 발언이자 80년 5월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발언이며, 민주정신을 퇴행시키는 발언"이라면서 "민주주의를 위한 광주시민의 헌신과 희생을 외면하고, 오히려 국가 민주발전과 평화통일을 원하는 시민들을 모욕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하는 김 의원의 사상과 가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박치기 왕 김일씨 별세

1960~70년대 국내 프로레슬링계를 풍미했던 '박치기 왕' 김일씨가 26일 노원구 하계동 을지병원에서 자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7세.



<관련기사 5면>

지난 1957년 역도산체육관에 입문하며 레슬링을 시작한 김씨는 1963년 세계해비급 챔피언에 오르는 등 당시 프로레슬링계를 주름잡았던 국민적 영웅이다. 김씨의 빈소는 을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28일 오후 화장할 예정이다. 유족으로는 아들 수안씨와 애자, 손자씨 등이 있다. /연광뉴스



재광주광양향우회 향우 공동체 화합의 한마당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고향을 떠나 온 뒤 잠시나마 잊고 지내던 향우들과의 정감을 나눌 수 있는 「향우 공동체 화합의 한마당」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꼭 참석하시어 서로 간에 교부와 친목을 도모하고 즐거운 축제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 일 시 : 2006년 10월 27일(금) 오후 5시~7시
■ 장 소 : 무등산 권영호빌 4층 컨벤션홀
■ 연락처 : 011-603-9150(이문재) 019-605-3298(전준석)

재광주광양향우회 회장 허재호

동주의 황금소
봉선동·진월택지 남양휴튼
OPEN
102 평당 2억 9천 500만 원

무엇보다도 양질의 생활을 위한 최첨단 주거시설입니다.

1.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2.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3.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4.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5.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6.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7.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8.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9.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10.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11.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12.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13.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14.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15.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16.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17.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18.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19.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20.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21.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22.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23.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24.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25.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26.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27.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28.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29.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30.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31.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32.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33.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34.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35.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36.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37.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38.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39.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40.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41.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42.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43.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44.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45.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46.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47.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48.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49.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50.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51.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52.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53.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54.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55.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56.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57.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58.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59.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60.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61.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62.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63.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64.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65.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66.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67.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68.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69.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70.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71.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72.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73.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74.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75.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76.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77.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78.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79.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80.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81.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82.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83.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84.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85.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86.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87.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88.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89.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90.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91.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92.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93.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94.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95.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96.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97.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98.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99.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
100. 102평당 2억 9천 500만 원